

Nano-indentation 실험과 유한요소 해석을 연계한 재료의 탄소성 물성 평가법 개발

김윤재(고려대), 송태광*(고려대 대학원), 박준현(동명대), 한준희 (표준연구원)

A Method to Estimate Tensile Properties using Combined Nano-Indentation Tests and Finite Element Simulations

Y.J Kim (Korea Univ.), T.K Song (Korea Univ.), J-H Park (Tongmyung Univ.), J-H Hahn (KRISS)

ABSTRACT

Determination of elastic properties of nano-scale materials using nano-indentation tests is well established, but that of plastic properties is not yet clear.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to extract plastic properties from nano-indentation test, together with results from detailed elastic-plastic FE analysis. It shows that the plastic properties determined from this method are not unique, in the sense that a number of different plastic properties can give the same load-displacement response from nano-indentation test. Possible ways to overcome such problems are discussed.

Key Words : Nano-indentation(나노인덴테이션), FE Analysis(유한요소해석), elastic-plastic property(탄소성물성)

1. 서론

여러 산업에 큰 과급효과를 가져 옥 MEMS기술에 입각한 초소형 제품 개발은 현재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MEMS제품 상용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위해 MEMS 재료의 기계적 물성 평가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. 현재 제시된 많은 방법들 중 효과적인 나노인덴테이션 방법은 탄성을 구할 수는 있으나⁽¹⁾, 항복강도, 변형경화율과 관련한 소성물성을 얻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.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노인덴테이션과 유한요소해석을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접근법을 통해 재료의 탄소성 물성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.

2. Nano-indentation 실험

MTS 사의 Nano-indentation실험기를 이용하여 Si (111) 과 Al 3106 재료에 대한 나노인덴테이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, 실험을 통해 구한 하중-변위선도(최대 압입 깊이= 300nm)는 그림(1)과 (2)에 보인 바와 같다. 실험에서는 4 면체의 Berkovich 형상의 다이아몬드 압입자를 사용하였다. 또한 Oliver, Pharr⁽¹⁾ 등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시편에 눌렀다가 (loading) 뺄 때(unloading) 나타나는 깊이에 따른 힘, 최초 unloading 때의 기울기(깊이에 따른 힘의 변화, 앞입깊이 h (total depth)에서의 contact stiffness, S로 정의)를 이용하여 두 재료에 대한 탄성계수를 구한 결과, Si (111) 과 Al 3106 의 탄성 계수는 각각 182 GPa 과 86 GPa로 구해졌다.

3. 유한요소 해석

유한요소법을 이용한 nano-indentation 모델링은 상용프로그램인 ABAQUS 를 이용하였으며 압입실험시 소성변형을 포함한 대변형이 예상되므로 대변형(non-linear geometry) 해석을 수행하였다. 그림(3)은 해석에 사용한 요소로 압입자와 시편은 2 차원 축대칭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으며 시편의 크기가 깊이-하중선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편바닥과 외경부분을 무한요소로 나타내어 경계의 영향을 제거하였다. 해석에 사용된 재료의 물성은 탄성 및 탄소성 물성을 식(1)과 같은 형태로 가정하였으며, Si (111) 과 Al 3106 의 프와송비는 각각 0.36 과 0.33 으로 해석하였다.

$$\varepsilon = \frac{\sigma}{E} \quad (\sigma \leq \sigma_0)$$

$$\varepsilon = \varepsilon_0 \left(\frac{\sigma}{\sigma_0} \right)^n \quad (\sigma \geq \sigma_0)$$

식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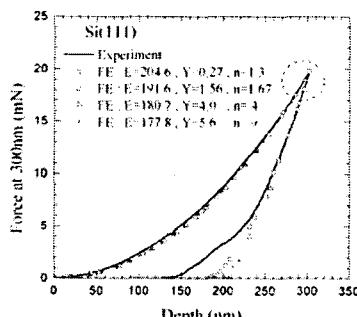


Fig.1 FE and experimental load-depth result of Si(11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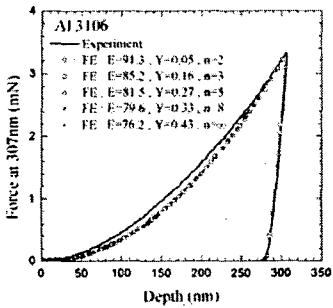


Fig.2 FE and experimental load-depth result of Al310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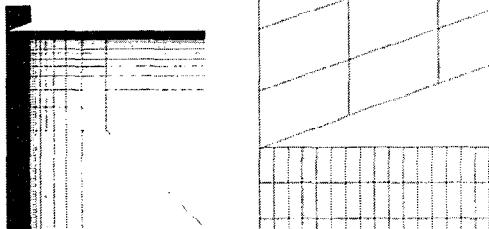


Fig.3 FE mesh of indenter and micro-scale material

참고로 식(1)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3 가지의 변수(탄성계수, E ; 항복강도, σ_0 ; 경화지수, n)이 필요하다.

4. 재료의 탄소성 물성 예측

원론적으로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 나노인덴테이션 실험 결과를 비교함으로서 재료의 탄소성 물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. 하지만 실험의 하중-변위 선도로 부터는 최대하중(F)과 S 등 두 값만을 구할 수 있으나, 재료 물성(식(1) 참고)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 변수가 필요하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경화지수 n 에 대해, Knapp⁽⁵⁾이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재료의 탄성계수와 항복강도를 결정하였다. 이 방법은 몇 개의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선형 내삽으로 물성을 구하는 방법이다.

$$E = a_1 S + b_1 F + c_1 \quad \text{식(2)}$$

$$Y = a_2 S + b_2 F + c_2$$

그림(1)과 (2)에 유한요소 해석으로부터 구한 하중-변위 선도를 실험값과 비교하였다. 해석은 4 개 혹은 5 개의 변형경화지수에 대해 수행하였고 각 변형경화지수에 대해 실험값을 잘 모사하는 항복응력 및 탄성계수를 구하였다.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, 하나의 실험 하중-변위 선도에 대해 다양한 탄성계수, 항복강도 및 가공경화지수의 조합이 가능하여, 재료의 물성을 unique하게 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. 그러나 그림(4),(5)에서 알 수 있듯이 재료의 물성으로 예측되는 물성의 조합은 특정 소성변형률 및 응력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.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다면 나노인덴테이션 실험 결

과로부터 탄소성 물성을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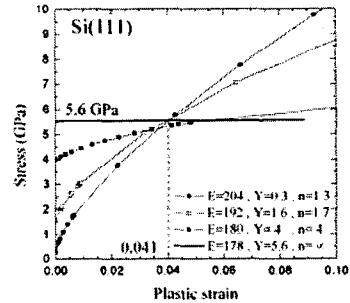


Fig.4 candidate stress-plastic strain curve of Si(11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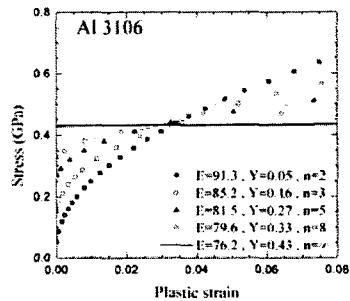


Fig.5 candidate stress-plastic strain curve of Al3106

5. 결론

본 논문은 nano-indentation 실험과 연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재료의 탄소성 물성을 예측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지적한 후,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.

후기

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(R01-2005-000-10400-0)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.

참고문헌

- W.C Oliver and G.M. Pharr, "An improved technique for determining hardness and elastic modulus using load and displacement sensing indentation experiments", Journal of Material Research, vol.7, pp.1564, 1992
- H. Hertz, "On the contact of elastic solids", J.Reine Angew. Math. 92, pp.156, 1881
- Ian N. Sneddon, "The relation between load and penetration in the axisymmetric boussinesq problem for a punch of arbitrary profile", international Journal of Engineering Science, Vol.3, pp.47, 1965
- K.L. Johnson, "Contact Mechanics", Cambridge University Press, Cambridge, 1985
- J.A. Knapp, D.M. Follstaedt, S. M. Myers, J. C. Barbour, and T. A. Friedmann, "Finite-element modeling of nanoindentation", Journal of Applied Physics, Vol.85, No.3, pp.1460, 1999,